

6만 교회 영성을 대표하는 한기부 2023년 신년하례 감사예배 드려

“성령의 불길을 세계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이하 한기부)는 지난 6일 오전 7시 30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당미1길 16 소재 한샘교회(담임 이승현 목사)에서 2023 신년감사에 배 및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이날 신년감사예배는 준비위원장 이승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준비위원장 김

월순 목사의 기도와 부서기 김용환 목사의 성경봉독(눅 5:4-7)이 있는 후 직전대표회장 정여균 목사는 “채워진 배”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한 후 총감사단장 남경술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합심 기도는 △2023년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제54대& 사)한국기독교여성부흥협의회 제5대와 회원교회

의 부흥을 위하여 △대한민국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되어 진정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소서! △진정한 복음통일 이루게 하소서! 다같이 기도한 후 서기 김동호 목사의 광고가 있는 후 이사장 송일현 목사의 축도로 신년 감사예배를 마쳤다.

2부 신년하례회는 상임회장 박승주 목사의 사회로 진행하여 대표회장 이종선 목사와 조래자 목사의 새해인사, 증경 회장단의 신년 축복의 덕담, 교우회장 송기배 목사가 진행한 신년하례, 선교회장 강순모 목사가 새 출발을 위한 축복의 기도, 총사업본부장 이길운 목사가 사업보고, 다같이 케익커팅, 상임총무 신미라 목사가 조찬기도를 했다.

2023년 한기부는 3·1절 구국기도회, 6·25 구국기도회, 8·15 구국기도회, 회원교회 성회 및 연합성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름 산상 사명자 집회와 화보(리바이벌)을 2023년 5월, 2023년 10월 발행할 계획이다.

만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영훈 목사

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방송 불가'로 판정했으나, 내부적

으로 재개한 재심을 통해 '방송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송 불가 이유로 '동성애'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노래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곳이다. 첫 부분은 “난 기적, 비 온 뒤 저 무지개는 또 내 이명.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임은 Jesus. 난 밤을 비추려 밝게 켜 달, 왕관의 무게를 견디련다.”라는 곳과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Uh, Next one is, QUEEN ROOYA

나는 질문이자 곧 답이야.”라는 부분이다.

이 곡은 단순히 동성애를 옹호하며 노래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수천 년간 기독교회가 구세주로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자의 선인 정도로 취급하며 비하하고, 게이인 자신을 예수의 후임으로 내세웠다. 이어 자신을 하나님께 게이로 설계하고 정하였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한 인간들이 은혜로 회복됨을 믿는 교리를 왜곡하여 기독교인의 믿음을 희화화하고 능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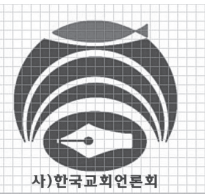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만일 <평등법>이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계 입장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넘어 극도의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상당수 일반 언론은 ‘차별 없는 세상의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왜 그렇게 기독교가 반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품고 사랑해야 할 기독교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차별한다고 공격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동성애자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반대를 거역의 이행강제금, 정벌배상금, 형사처벌로 틀어막음으로써 ‘동성애 독재 법’이라는 이름까지 얻고 있다. 과연 이러한 법을 학문과 사상, 언론, 종교의 자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간첩행위라니?

이미 체제 판정이 끝났는데, 누구를 돕는 것인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만들었던 고 황장엽 씨는 공산주의에 환멸을 느끼고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었다. 이미 공산주의는 발생한 지 70년 만에 문을 닫았고, 자유 민주주의에 비하여 체제 경쟁에서 확실히 밀려났던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치고, 주민들의 자유와 그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 나라가 얼마나 있는가?

특히 북한을 보라. 그런데 그런 북한을 돕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간첩행위를 한 사람들이 검거되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문에는 ‘진보·춧볼세력 연대를 통한 반정부 투쟁과 북한 주체사상 및 김 위원장 선전, 특정 인물 포섭, 정치집회 공작을 통한 윤 정부 타격 등’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또 ‘합동 군사 훈련 중단,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반대와 반미 투쟁과 대중 투쟁을 연속적으로 전개해 압박의 도수를 높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보수 집권 세력의 사대 매국을 부각시키고, 반통일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라’고 하달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지하조직을 결성할 것까지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 지령문에는 민노총과 같은 진보 단체들이 적시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자신들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모든 자유와 권리와 부를 누리고, 약자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구상 최악인 나라의 지시를 받고 우리 사회를 혼란케하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낸단 말인가?

우리나라가 간첩들의 활동무대가 된

이유는, 역대 진보 정권들이 그들을 색출하는데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북한 정권의 눈치 보기를 한 때문이다. 진보 정권들은 국가공동체를 지탱해야 할 대공과 공안 조직을 와해시키고, 그저 ‘북한 바라기’를 했기에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것이다.

진보 정권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앉히는 등의 국가 안위를 도외시하고 안보 문맹(文盲)에 사로잡혔었다. 그런 권력자들의 착각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간첩들이 마음대로 활보하여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1년 10월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통일부장관은 야당 의원이 ‘총북 청주지역 활동가 간첩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주장한 고 정간첩 5만 명 활동설’에 대하여 ‘비상식적·물상식적인 질문’이라고 답하고,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은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대답이었다. 진보 정권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의 생각이 대동소이(大同小異)했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남간첩을 대한민국에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이는 그들이 간첩을 직접 보내는 것보다, 남쪽에서 간첩들이 올려보내는 정보들이 훨씬 많다는 반응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에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우리나라를 위기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며,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어리석은 일이다. 이는 앞에서 총을 들고 대드는 적군보다 훨씬 나쁜 암적 존재이다. 국가와 국민을 속여서 암암리에 체제 전복을 꾀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이다.

북한은 일반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악한 절대왕정보다도 더한 3대를 세습하는 공산주의 국가중 유일한 나라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독재·전제 정권을 돕는 것은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들을 영구적으로 불행에 빠트리는 지상 최대의 악행이 될 것이다.

과거에 주사파(主思潮)에 빠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상당수가 정치권에 들어가 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겠는가? 그들이 만들려는 세계는 어떤 것이겠는가? 그들이 돕는 세력은 누구겠는가? 그들을 자유와 정의의 이름으로 발본색원(拔本塞源)하지 않고는 우리의 평안과 안보는 보장하기 어렵다.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를 전복시키려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지금도 숨어서 간첩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트로이의 목마’이므로 우리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 유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북한 독재정권을 위하고, 그 주민들을 불행으로 몰아넣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동지를 허무는 간첩(間諜)들을 풀어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 간첩은 마치 답답이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서, 독사 새끼로 깨어나면 어미 닭을 물어 죽이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불행한 결과가 오기 전에 이적(利敵) 행위를 세밀하게 찾아내야 한다.

간첩행위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나무를 갹아먹는 것이고, 국가 안전의 독에 구멍을 내는 것이며, 국가번영과 국민의 행복에 독약을 뿌리는 것과 같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내부의 분열과 배신으로 망한 나라는 부지기수이다. 우리는 이를 경계한다.

한국교회연의회 논평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심의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오충철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cpj5037@daum.net / jtntvcjp@naver.com

▶팩스 :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 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 부터~

▶1년 구독료 : 5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축 2023년 근하신년

좋은 만남 행복한 성도



담임목사 박수영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기도	오후 8시
새벽기도	오전 6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6길 11 동대구반도유보라 후문
TEL. (053) 752-8238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대학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함.
◆ 과정수로 후 세계로신학대학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위점,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 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교암동182-3)
문 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대학원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아직도 장례비용 선불로 내고 계십니까? 필요한 품목만 정하는 선택형 서비스

01. 단순장례식 120만원

- ☐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 ☐ 고인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 ☐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 ☐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
- ☐ 화장시 : 목함 매장시 : 횡대

02. 3일장 기본장례식 185만원

- ☐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 ☐ 영좌설치 : 빈소용품
- ☐ 고인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 ☐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 ☐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
- ☐ 화장시 : 횡대봉인함 매장시 : 횡대

03. 3일장 고급장례식 220만원

- ☐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 ☐ 영좌설치 : 빈소용품
- ☐ 고인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 ☐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 ☐ 고급리무진 and 장의버스 제공
- ☐ 화장시 : 횡대봉인함 매장시 : 횡대

1644-2542/010-3788-1130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몽



상담목사 박영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향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예장합동보수 2023년 신년하례 감사예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총회장 이규필 목사시무)는 지난 1월 10일(화) 오전 11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소재 동천교회 본당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2023년 신년하례 감사예배를 드렸다.

총회 서기 서재식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목사가 기도드렸으며, 회의록 서기 : 김주현 목사는 사 60:1절을 봉독하고,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일어나야 할 것을 서두로, 왜 일어나야 하는가를 사 60: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가 전반부는 죄값으로 바빌론에 패망한다는 예언이고, 후반부는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되 회복을 앞세우신다고 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 주저앉아 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는 백성들은 주저앉았던지, 넘어졌던지, 패망했던지 다시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다고 했다. 이사가 선지자는 1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더 격하게 말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지겹다.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기 100여 년 전 예언을 기억

하고, 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패망할 때 활동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을 북돋아 주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그리고 바빌론에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는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택한 목회자이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더 사랑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70년을 예언하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되면 너희가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다가 단 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금

식하며 기도한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총리를 맡고 있다.

또한 당시에 120명의 방백과 총리 셋 중에 왕에게 쓰임 받는 총리가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바빌론에 끌려와서 혹독하게 고난당하고 인권도 빼앗기고, 모든 조건도 다 빼앗기고 힘들어 할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회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다

니엘 생전에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게 되었다. 그런데 바빌론에 망한 민족을 향해서 미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는 그때 거기서 일어나야 된다고 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 보면 예레미야가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것은 우상을 멀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중략--- 지저스타임즈 cjtn tv 방송을 영상물 통하여 자세한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이날 총회 회개 송인섭 장로가 헌금을 기도들, 총무 박용순 목사가 광고를, 증경총회장 강대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특별기도회는 전예회 목사(서인노회 증경노회장)의 인도로 진행되어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서종우 목사, 2.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이세중 목사(한중노회장), 3. 남궁열 목사(서인노회장), 4. 총회임원과 노회임원을 위하여 천종록 목사(총회 부서기), 5. 전국교회와 동천교회를 위하여 유형사 목사(서경노회 회계) 등이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날 신년하례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이어 동천교회(이선영 목사)가 점심을 제공하고 총회 김국태 목사의 만찬을 위한 축복기도를 한 후 맛있는 차려진 식사를 즐기며 덕담을 나누었다.

한편 한중노회 신년하례회는 1월 17일(화) 오전 11시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58마길 31 노원예담교회(임원택 목사시무)에서 신년하례를 갖고 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마련한 식탁에 둘러앉아 만찬을 즐기며 덕담을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세기총 신년하례예배 및 한국교회 화요평화기도회 개최

“한반도 평화통일의 진원지가 되는 기도모임으로”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2023년 신년하례예배 및 한국교회 화요평화기도회를 개최했다. 세기총과 대한민국 평화통일국민문화회 조직위원회가 함께 주최한 이날 기도회는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주관으로 김포시와 국민일보, 기독교일보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한국교회 화요평화기도회'는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었던 독일 라이프치히 성니콜라이교회의 평화기도회를 벤치마킹해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그 시작을 세기총 주최로 드리게 되었다.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의 사회로 드린 기도회는 지구촌선교회 위신선교단의 난타공연과 위신으로 문을 열었으며, 상임회장 이재희 목사(우리민족교류협회 여성총재)의 대표기도, 공동회장 김기태 목사의 성경봉독, 지구촌선교회 위신선교단의 특별위신에 이어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느헤미야 1장 1~11절)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했다.

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할때"라고 말했다.

또 신화석 대표회장은 “최근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남북의 평화, 특히 남한의 협치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다”라며 “독일의 라이프치히 성니콜라이교회가 독일 장벽을 무너뜨리는 진원지가 된 것처럼 오늘 이 기도모임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고, 한국교회의 순결성이 회복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복음의 제사장 국가가 되는 진원지가 되는 기도모임이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에는 공동회장 박신영 목사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북한 복음화를 위해’, 공동회장 김태성 목사가 ‘한국교회와 세계 한인교회를 위해’, 공동회장 성두현 목사가 ‘750만 재외동포와 3만 한인선교사를 위해’, 김진우 장로(우리민족교류협회 북방선교회 실무총재)가 ‘국가와 민족, 경제 안정을 위해’ 각각 기도했으며 장수형 장로(행복한안디옥교회)의 헌금기도가 있다.

또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9대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와 전, 농림부장관 김영진 장로(우리민족교류협회 조직위원장)가 격려사를 했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제창한 뒤 3대 대표회

장 김요셉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세기총 신년하례식은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와 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 송기학 장로가 새해 인사를 했으며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는 “새해에는 성령에게 이끌리며 사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 송기학 장로는 “오늘 예배는 성니콜라이교회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5년 전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오늘의 평화기도회는 7개국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함께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로 했다”고 말한 뒤 “이 곳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매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매년 신년하례예배와 새해의 시작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온 세기총은 올해도 예배 헌금과 성금을 모아 김포지역의 ‘김포성폭력상담소(소장 배순선)’에 전달했으며,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상임회장 소강석 목사, 상임회장 이재희 목사 등 여러 임원들의 성금으로 후원금을 마련했다. 특히,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진행하는 ‘통일을 준비하는 범국민운동 한반도 평화메달 수여식’을 갖고 세기총 3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4대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 6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9대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에게 한반도 평화 메달을 수여했다.

한반도 평화 메달은 지난 2013년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사업 차원에서, 한반도 분단의 현상이자 상징인 DMZ 녹슨 철조망과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참전용사들의 낫이 깎여 있는 6.25 당시 탄피 등을 녹인 특수합금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제작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수고한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광고와 참가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북녘땅을 바라보며 손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공동회장 홍석영 목사의 마무리 기도 후, 장소를 옮겨 ‘남북평화의 종’을 함께 타종하며 모든 순서를 마쳤다.

축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2023년 신년하례 감사예배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 60:1)

신년 새해 임원일동 拜

총회장 이규필 목사

총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가산동) 전화:(02)496-0191 / 0181(FAX 겸용)

靑松 건강칼럼(885)... Cholesterol Day

새로운 인구정책 수립



靑松 박명웅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경영연구소 이사장)
靑松 건강칼럼(762)... Cholesterol Day
콜레스테롤(Cholesterol)과 건강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대응 예산을 편성해 16년간 28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出生率)은 더 떨어졌다. 작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꼴찌다. 5년 전 1명 아래로 내려간 뒤 계속 내려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에서 추락 중이다.

많은 나라들이 사회발전 과정에서 출산을 하락을 경험한다. 그러나 출산율이 아무리 나빠져도 1명대에서 반등하거나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도 15년 전 인구 감소가 시작되어 2005년 1.26명에서 소폭 올라가 1.3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세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출산을 막는 사회적 제약이 사랑스런 아이를 가지려는 인간의 본성까지 억누를 만큼 심각함을 말해준다. 인구 감소 문제는 가정에 수단을 얼마 더 주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문제는 질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집값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힘들 만큼 오르고, 자녀 교육비에 부모의 허리가 휘고, 폭증하는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환경에서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가?

행정안전부가 1월 15일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44만명으로 1년 전(5164만명)보다 20만명(0.4%)이 줄었다. 2019년 5185만명을 찍은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감소폭도 크지는 추세로 2020년 2만명 감소, 2021년엔 19만명, 2022년 20만명이 감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구 전문가들은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것은 본격적인 '인구 소멸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인구는 감소했지만, 전체 세대 수는 1년 새 2347만3000세대에서 2370만6000세대로 23만 3000세대(1%)가 늘었다. 이는 '나 홀로 사는 1인 세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 세대는 972만4000세대로 전체 세대의 41%를 차지했으며, 1인 세대와 2인 세대를 합하면 전체의 65.2%로

나타났다. 반면 3인 세대와 4인 이상 세대는 그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세대의 평균 세대원 수는 2.1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남녀 간 인구 격차는 지난해 여성 인구는 2580만2000명으로 남성 인구(2563만7000명)보다 16만5000명 많았다. 2015년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처음 추월한 이후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추세이며, 여자의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여초(女超)사회는 더 심화할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 남아선호사상(男兒選好思想)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본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출생자 수가 25만 4628명으로 처음 26만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출산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2020년(30만7764명) 이후 지난해(37만2631명)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작년에는 코로나사태 등으로 1년 새 5만4208명이 늘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인구 감소폭이 더 커질 것"이라며 "현재 60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인구 감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보통 베이비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 베이비부머)라고 하면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을 일컫는다. 베이비부머와 연관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58 개파'이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9년 동안 출생아수가 급증했다. 출산억제정책으로 64년부터 출생인구가 줄어드는 듯 했다. 하지만 68년 이후 다시 출생아수가 증가했고 이것이 1971년에 정점을 찍은 뒤 1974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학계에서는 1968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을 2차 베이비부머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작년 한 해 동안 약 20만명이 줄어, 202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 인구는 9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8%를 넘었으며, 여성 인구는 이미 20%를 넘어섰다. 이대로 가면 2025년 전체적으로 20%를 돌파해 '초고령(超高齡) 사회'에 진입한다. 이는 65세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된 지 7년만이다. 일본은 11년 걸렸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으므로 더 강도 높은 인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UN)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노인(老人)이란 65세 이상을 말한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사회(高齢化社會, aging society)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말한다. 고령사회(aged society)란 노인 인구가 14% 이상, 그리고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는 노인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6년 뒤엔 최고 비율을 차지하는 세대인 50대 861만명이 줄지어 노인 집단에 진입한다. 한편 매년 줄어드는 생산연령(15-64세) 인구가 부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 이에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므로 국가 경제는 활기를 잃게 된다. 좋은 선례가 이웃나라 일본이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던 일본은 고령화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쇠락했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는 지방의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65세 이상 25%), 경북(24%), 전북(23%), 강원(23%), 부산(21%), 충남(21%)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19.9%)과 경남(19.5%)도 내년에 초고령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군(郡) 지역은 전국 82개 군 중 76곳(93%)이 이미 초고령사회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기초연금 예산, 지하철 무임승차 요금 등 각종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는데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 재정 압박이 커지고 경제 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인구학 권위자 조영태 교수는 "전(前) 정부가 주도했던 핀셋 방식의 출산을 제고, 고령화 방지 정책은 눈앞에 닥친 현상을 무마하는 데 목적을 뒀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현(現) 정부는 암울한 미래를 대대적으로 바꿀 새로운 정책들을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태 교수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원장이며,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TF'에서 공동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조영태 교수가 꼽은 '새로운 정책'의 예시는 정년 연장과 연금규범 완화, 지방 생활공간 개편 등이다. 현재 정책과 제도는 대부분 인구 규모가 커지던 고도 성장기에 마련된 만큼 인구 감소기에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세수(稅收)를 확보하고 재정을 튼튼히 하며 지역·세대·집단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 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지 않으면 인구 문제 개선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필자가 최근에 조영태 교수를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박명웅 특지장학금' 수여식과 보건대학원총동창회 친목모임에서다. 필자는 지난 1999년 12월 회갑을 기념하여 1억원을 서울대학교에 기탁하여 특지장학회를 설립하고 2000년 1학기부터 매학기 보건대학원 재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장학생 138명에게 지급했다. 2022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은 보건대학원 조영태 부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정호지 원장이 축사를

했다.

그날 조영태 교수가 직접 서명한 〈인구 Population 미래 Future 공존 Coexistence〉한 권을 필자에게 증정했다. 이 책의 저자 조영태 교수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동해 다니고, 사망하는 인구현상을 통해 사회의 특성과 변화를 읽어내는 인구학자다. 고려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학에서 사회학으로 석사를, 인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2015년부터 베트남 정부의 인구정책자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영태 교수는 〈인구 미래 공존〉에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방안들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그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3가지다.

첫째, 조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30만 명씩 태어나던 아이가 3년 만에 20만 명대로 떨어졌으니, 조만간 10만 명대로 추락하지 않겠냐고 걱정인데, 지금보다 합계출산율이 더 낮아져도 10년 정도는 20만 명대 출생아가 유지될 수 있다. 인구감소의 시간표는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앞으로 인구감소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게 될지 정밀하게 예측하고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면, 2020년대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라는 것이다. 2030년이 오기 전 10년은 우리가 인구감소의 충격에 대비할 마지막 기회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가 15년 넘게 한국사회를 떠돌았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인구학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을 때 쓰는 용어)를 맞았다. 마지막 기회로 주어진 2020년대를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흘려보낼 수는 없다.

셋째, 그래서 함께 살자는 것이다. 인구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흔히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으라'거나 '청년 일자리를 위해 장년들이 더 일찍 물러나라'는 누군가의 양보와 희생을 전제하곤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희생이나 경쟁을 최소화하며 각 집단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공존(共存)의 방안이 있다. 인구학적 관점으로 생각하면 가능하다. 즉, 인구학적 상상력을 통해 어두운 미래를 공존의 미래로 바꿀 지혜를 모색할 수 있다.

노년내과 전문의 정희원 교수(서울아산병원)는 "한국의 최대 위기는 자연 노화보다 빠른 '가속 노화'다"라고 말했다. 가속노화(加速老化, Accelerating Ageing)란 신체 기능의 노쇠화를 속도로 나타낸 생물학적 개념이다. 노화가 진행되는 정도는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정도와 같은데, 숫자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이가 90대가 되어도 중년 정도의 신체·인지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60대에 요양병원·요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약 100만명 수준이며, 요양보호사는 약 50만명이다. 그런데 지금의 고령화 속도와 가속 노화 정도를 계산하면, 20·30년 후엔 요양보호사만 150만명이 필요하게 된다. 돌봄이 덜 필요한 사회가 될 때 장수(長壽)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된다.

저출생·고령화는 아이들만 낳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미래의 노인들이 스스로 신체 기능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데도 불구하고, 노인의학(老人醫學)에 대한 관심이 적다. 영국은 1940년대부터, 미국과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노화 문제 및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근거한 의료 행위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미국노인병학회(American Geriatrics Society)와 미국병원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에서 권장하는 '가속노화에방법'은 4M 건강법(Mobility, Mentation, Medical Issues, What Matters)이다. 가속노화를 피하고 노화 지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육체와 마음의 건강을 다각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첫째 M은 이동성(Mobility)이다. 우리 몸은 처음부터 많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노년기에도 되도록 많이 움직여야 한다. 자신의 건강과 체력 조건에 맞는 운동 종목을 찾아 꾸준히 운동습관을 길러야 한다. 둘째 M은 마음·정신건강(Mentation)이다. 정신건강은 적절한 몸일 활동을 통하여 꾸준히 뇌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마음건강은 치매(癡呆) 예방에도 중요하다.

셋째 M은 건강과 질병(Medical Issues)이다. 가속노화를 피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좋은 방법은 건강한 생활습관과 균형이 맞는 식습관이다. 일상 속 좋은 습관을 지키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플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지막 M은 나에게 중요한 것들(What Matters)이다.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남기는 것이다. 젊었을 때나 인생의 전성기 때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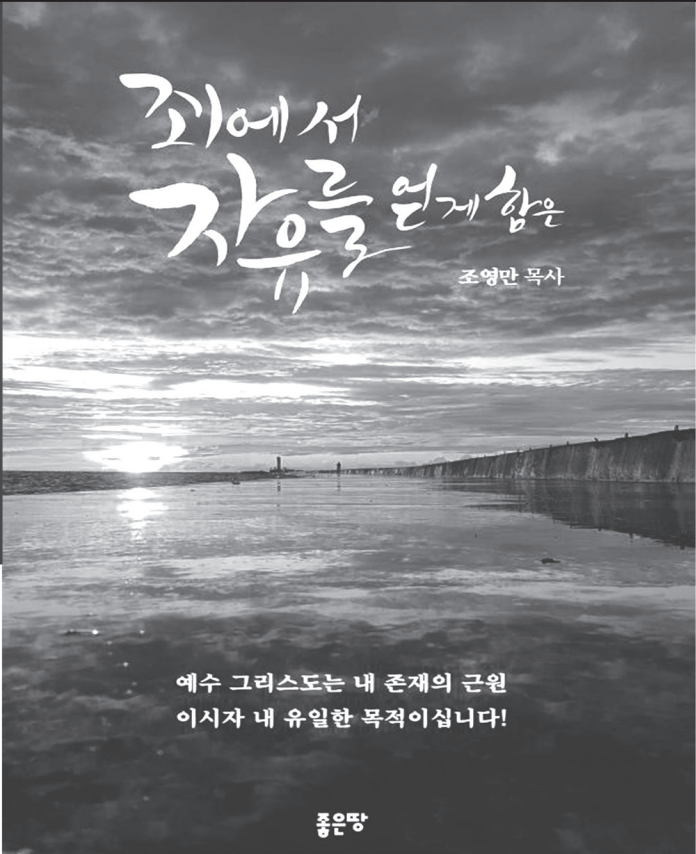
네 가지 축의 건강관리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큰 폭으로 좋아질 수 있다. 다만 연령대에 맞는 신체 관리가 중요하다. 노화는 요령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이 잘 늙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이른 때인 것을 명심하고 실천해야 한다.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오랜 기간 요양병원에서 누워 지낸 것인지를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가족의 축하를 받으며 100세 생일잔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영만목사

인천시온장로교회 담임목사
경인백석신학교 교수
지저스타임즈 부지장
현) 연수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전) 인천 시청 신우회 지도목사
전) 인천 메트로 신우회 지도목사
전) 인천총합간선본부 지도목사
전) 인천 동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국제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전공
국제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 전공
안화대학교에서 체육교육과 전공
안화사대부속고등학교 10회

저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나침 출판사)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아가강해 상』(나침)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아가강해 하』(총은망)
『자유해리라』(총은망 출판사)
『가들남은 성경새례가 아닙니다』(창송 출판사)
『전인구원이 구원의 방주입니다』(나침 출판사)



예수 그리스도는 내 존재의 근원
이시자 내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종은망

*** 책 주문 방법입니다.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주문자 성명, 입금자 성명, 받으실 주소, 신청 권수,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연락처 : 010-5355-2584
이메일 : choym7777@hanmail.net
예금주: 시온교회 658101-01-715840 국민은행
책가격: 15,000원
다음 카페: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http://cafe.daum.net/choym.com
유튜브: 조영만

목차

1. 성결을 이루려면
2. 죄에서 벗어나려면
3. 기쁜 소식(1) - 죄의 쓴 뿌리와 기(氣) 속에 있는 죄
4. 기쁜 소식(2) - 원죄
5. 기쁜 소식(3) -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
6. 속시암(새시암)을 강권케 하는 비결
7.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8. 속시암(옛시암) 옮겨 죽이는 비결
9. 죄를 짓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이제 끝
10. 선과 의와 진리 가운데 못사는 것 이제 끝
11. 죄로 인한 죄절과 실패와 괴로움 이제 끝
12. 독립군과 해방군
13. 새생을 이긴 이감 - 물과 피와 성령
14. 오해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남기신 이유
15. 장대위에 단 노뿔을 바라보라
16.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죄절을 하라하신 이유
17. 이기는 생명은 오직 주 예수입니다
18. 죄를 피 돌리기까지 싸운다는 의미는?
19. 환난과 시험을 하라하시다는 의미
20. 고난의 유약은 하나님의 마음을 빼우는 것입니다
21. 예금(새상)에서 광애(육신)로
22. 광애(육신)에서 가나안(성결)으로
23. 말뿐인 예수 그리스도
24. 잃었던 첫시암을 회복하려면
25. 두 번 죽어야 성결의 은사
26. 죽이는 사역과 살리는 사역
27. 죽은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28. 산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29. 목회서신(000 목사님께)
30. 죄의 종이나? 의의 종이나?
31. 누가 주님을 의지할까? - 열광한 다리에 뭘 목발?
32.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1)
33.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2)
34.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2-1)
35.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3)
36.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4)
37. 작은 말뚝에 매여 있는 불성한 코끼리

38. 동보다 더러운 죄 버리는 비법(1)
39. 동보다 더러운 죄 버리는 비법(2)
40. 죄 버리는 것이 어려워서 참니까?
41. 마음(혼)에 있는 비진리 쉽게 버리는 비법(1)
42. 마음(혼)에 있는 비진리 쉽게 버리는 비법(2)
43.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1)
44.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2)
45.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46.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47. 공개! 마음의 경작 비결
48. 안식 그 이후
49. 죄(Sins)사함과 죄(Sin)에서의 해방
50. 목회서신(000 성도님에게)
51.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의미는?
52.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53. 영의 사람이 되려면?
54. 하나님의 열심과 자기 열심
55.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56.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나?
57. 자기의 유채를 위해 십자 마세요!
58. 개집총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59.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1)
60.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2)
61.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62. 메בל레와 나비(젓 먹는 신앙과 밥 먹는 신앙)
63. 원수마귀의 거짓말
64. 영적 생활의 기본 원리
65.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6. 믿음의 분량에 따른 믿음의 선한 싸움은?
67.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
68. 첫 열매로 들림 받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은?
69.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70.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성하실 그 일은?
71. 일천 척씩 척량하시는 주님
72. 마지막 때 지어야 하는 상종하 삼층 방주는?
73. 젊어서 낳은 자식이란?
74.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려면?
75.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만류권을 받는 일뿐입니다!

예장진리총회 예장진리총회 2023년 신년감사예배 드려

깨어 있으라(눅 21:34~36)



장한국 목사
예장진리총회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는 지난 1월 6일(금)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교 소재 주 사랑교회(총회장 장한국 목사시무) 본당에서 2023년 새해를 맞아 총회, 노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감사예배를 드린 후 중식을 마친 후 5명씩 조를 편성하고 擲筊(척사)대회를 가졌다. 총회서기 김종천 목사의 인도로 1부 새해 감사예배가 시작되고 김은임 목사가 기도드렸다.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눅 21:34-36절을 중심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장 노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새해 환영사를 전하고 “2023년 새해에 첫 만남과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축복을 기원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의 일에 사역자들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한 양들인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고 했다.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다시 눅 21:34~36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에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성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 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덮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

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다.”고 하시더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동하고 설교를 이어갔다.

1. 36절에서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라’는 것은 곧 전개되어 질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가리키면서, 그러한 일이 있기 전 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자라고 했다.

2. 언제 우리가 피하라고 했는가? 35절 말씀처럼 그 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덮처럼 임하기 전에 피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장한국 목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며 말씀을 이어갔다.

3.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어느 때에라도 마음이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성의 염려로 무겁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마음이 무겁게 되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로서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없고 거기 땅에 속한 자가 되며 결국 하늘의 복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서, 다시 말해서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성의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지면 안 된다고 했다.

또한 마음은 어디 있는가? 몸 안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제물이 되었다고 했으며,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자기의 부모로부터 나온 몸과 이름은 세례를 받음으로 죽은 것이며, 새것으로 바뀌었으며 산 제물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산 제물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은 것이며, 그리스도가 대속하여 부활하셨다고 했다. 그러

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몸이라면, 그전에 산 제물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힘입어 목회의 사역을 하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열납하신다. 고 했다. 또한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 방탕과 술 취하면 안 되며, 이 마음이 이성의 염려로 무거워지면 안 된다고 했다.

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성의 염려로 마음이 무거울 필요가 없으며 방탕과 술 취함이 이제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술에 취하여 방탕이 아닌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변하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날 진리총회는 5~6명씩 조를 편성하고 진목회로 擲筊(척사)대회를 갖고 푸짐한 상품이 123등에게 주어지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으로 상을 선물했다.

한편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기독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오는 1월 26일(목)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 복음진리선교회 주관으로 세미나를 갖는다고 했다. 이날 예영수 박사, 장한국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또한 전민족 성경 신앙 박사 교육원 개강예배가 오는 2월 25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교 소재 주 사랑교회(장한국 목사)에서 갖는다고 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예수상을 왜 만든답니까?



이억주 목사
대표회장

최근 교계 일각에서 세계 최초로, 세계 최대의 ‘예수상’을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수상을 세운 예는 없다. 어느 교회에서든, 크든 작든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하는 것을 금기시했던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바 ‘어떤 형상’을 세우는 것을 우상(偶像)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기독교와 비슷하면서도 교리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다른 종교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십계명의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정한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기독교를 크게 알리고, 기념비적인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고, 복을 전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매우 기뻐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재앙을 내릴 것을 분명히 하셨다. 또 이미 모세오경 말씀을 통하여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4-5)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

“
큰 형상이 전능자에게
영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던가요?”
”

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열왕기하 9:6-9)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시고, 만주(萬主)의 주가 되시며, 만왕(萬王)의 왕이시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 예수의 상(像)을 만들어 세운다는 것은 우상의 행위가 될 뿐이다. 이런 계획을 세운 단체와 지도자들은 세계 최대의 예수상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인간의 손으로 명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형상으로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려고도 하지 말고, 기독교에 관하여 기억할만한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한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금 교계 일각에서 로마 교황청을 본따서 ‘기독교’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우리 기독교 복음의 능력은 건물이나 기관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인간이 만든 권력, 형상으로 신장(伸張)하거나 제한하거나 의지할 것이 아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예수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뿐더러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이 되면, 전능자에게 영광될 수 없으니 그만두실 것을 정중히 권면(勸勉)한다.

2023년 웨신총회(인천) 신년하례식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인천측은 지난 1월 17일 인천YMCA 7층 강당에서 “2023년 신년 하례식 겸 총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웨신총회는 지난 9월 총회 이 후 내분으로 인한 혼돈의 년말을 지내며 우여곡절 끝에 수습되었으며 이제 어엿한 총회의 면모를 갖추고 기쁨의 전지를 이루게

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서기 김현숙 목사(서경노회)의 인도로 진행된 가운데 부총회장 김영환 목사의 기도와 손찬현 목사, 윤정순 목사(중앙노회)의 특송에 이어 총회장 박노경 목사의 본문 눅 6장 27절~35의 말씀을 주제로 설교했다.

이어 이정구 목사의 헌금기도와 증경총회장 김춘택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로 취임식은 열화와 같은 축하의 박수와 환호 속에 거행되었으며, 이번 취임식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난 총회 때와는 다르게 소비를 절약하는 의미도 있고 허스레라는 생각에 임명패를 하지 않고 총회장단과 신임 노회장에게만 패를

수여하고, 연임 노회장들에게는 증서로 대신하였으며, 취임식 후 증경총회장 정일량 목사, 김춘택 목사의 덕담으로 이어졌다.

2부 취임식을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임원회가 이어졌다.

이번 임원회에서는 강도사고시와 총회주임, 신학교 주임, 선교주일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으며, 특별히 “교단발전 위원회”를 박노경 목사, 김영환 목사, 이정구 목사로 구성하여 앞으로의 대외 총회 문제에 대하여 위임키로 했다.

총회장 박노경 목사(수도노회) 부총회장 김영환 목사(연합노회), 영희정 목사(경향노회), 서기 김현숙 목사(서경노회), 회계 이정구 목사(수도노회), 회의록서기 이미숙 목사(서경노회), 총무 전우현 목사(서울노회) 등이다.

축 2023년 예장진리총회 신년하례 감사예배

주제 : 깨어 기도하라 (눅 21:34~36)

1. 복음진리선교회 세미나 참여
 - 일정 :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1시 오후 3시까지
 - 장소 :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 강사 : 예영수 박사, 장한국 목사

2. 전민족 성경 신앙 박사 교육원
 - 개강예배
 - 일시 : 2023년 2월 25일 (토요일/오전 11시)
 - 장소 : 주 사랑교회
 - 1부 예배 후 점식식사



장한국 목사
주 사랑교회

총무	서기	회의록서기	회개
정요한 목사	김종천 목사	김은임 목사	김정미 목사

진리총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교로 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전상열 목사 010-453-1719

▶게시록 10장 강해(63)

두 증인의 사역

(지난번에 이어서)

두 증인의 사명 끝난 후 순교: 이들이 증거를 끝마치는 때는 1,260일 증거사역이 끝나는 때이고, 전 삼년 반이 끝나는 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이스라엘과 한 이레 언약을 세우는 때이고 이것이 환란의 시작입니다. 이때 두 증인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환란이 시작할 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올라와 등장하였습니다.

여기 7절에서의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이때 등장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환란이 시작되어 이미 등장되어 있지만 전 삼년 반 기간 동안 두 증인이 그들이 가진 권세로 증거 할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전혀 막질 못하다가 1,260일 예언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회수하실 때 적그리스도가 그 통치권으로 이들을 죽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7절의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등장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들을 죽이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도 첫째부활을 해야 하기에 반드시 죽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증인들이 죽은 몸들이 영적 소돔과 이집트, 골고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소돔은 음행의 포도주로 취한 곳이었으며 그래서 유향불로 불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화와 모든 것이 발전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음란, 패역, 육과 세상을 위해서만 쓰여 지고 하늘나라와는 조금도 상관없는 것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증인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두 증인들은 하늘에 속한 자이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일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의 신앙이 두 증인의 신앙과는 정반대였기에 두 증인의 시체가 그곳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출애굽 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노예로 학대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무시하고 대적한 곳입니다. 두 증인도 마찬가지로 대적하고, 죽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직접 죽이는 곳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영적인 곳인 것입니다. 즉, 전 세계에 144,000의 시체가 즐비한데 그들이 있는 곳이 영적으로는 주님을 못 박아 죽인 곳과 같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곳과 같이 악함으로 대적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강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입니다.

9절: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할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10절: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두 증인의 사역으로 괴로워하던 자들이 두 증인이 죽은 것을 구경하고 매장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들이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 없는데 두 증인이 증거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 증인의 죽은 몸들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와 반대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예비처 성도들입니다. 순교자들은 이미 전 삼년 반의 기간 동안에 순교를 하였고, 두 증인들도 이미 순교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비처 성도들은 은혜 시대에 땅에 사는 자들이었으나 환란 시대에 두 증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전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관적인 능력으로 예비처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자들은 믿는 사람들이나 순교도 하지 못하고, 예비처도 가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아닌 부분들은 자꾸 쳐서 하늘에 계속 속한 자들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 중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어 두 증인들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깨달아 예비처로 인도되어 휴거 성도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복인 것입니다.

반면 여전히 땅에 사는 자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들

이 증거 하는 것으로 그들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장도 안하고 길거리에 두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를 보고 두 증인이 증거 한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회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이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11절: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두 증인 시체가 살아나 하늘로 올라갈의 계시: 이 말씀에 대해 많은 잘못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리 올라오라."하는 것이 승천이라고도 하고, 휴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죽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생명의 영이 들어가서 선 것입니다. 그런데 휴거는 죽었다가 살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승천도 아닙니다.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면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부활은 아들의 영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주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죽었던 육체의 몸이 생명의 영인 성령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부활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자가 가장 먼저 부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환란 중에 부활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두 증인들의 믿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을 것이 하나도 없이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면서 1,260일 예언하는 사역을 하다 순교 당하는데, 순교 당한 그들의 몸도 이 땅에 남겨둘 필요가 없으므로 예복과 같이 올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중심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두 증인들을 보고 그들이 죽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던 이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던 그들은 두 증인들이 한 말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 것은 두 증인들이 증거 한 것이 참 진리임이 확증된 것이기에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던 자들이 어찌 하든지 진리로 돌아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두 증인들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작 두 증인들은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순교한 자들은 비방하고 욕하고 심지어 죽이는 자들까지도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줄 자들로 쓰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기에 원수로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 증인들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증거 한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13절: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칠천 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둘째 화 사건의 시점 계시: 우선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의 의도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 같은 시각이라 하면 앞서 두 증인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신 뒤 올라가는 시간인데 이때는 전 삼년 반이 지나고 삼일 반이 지난 후입니다. 이미 후삼년 반에 들어가 있는 때입니다. 이미 [계 8:13] 말씀을 통해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 다섯 번째 화가 나팔을 부니 첫째 화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루어지며 세 번째 화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루어지며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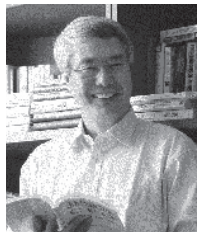
그렇다면 둘째 화는 이미 8장에서부터 9장에서 이미 끝난 것인데 왜 [계11:14]에 하나님께서 왜 또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13절의 이 말씀이 둘째 화이며 실제 내용이 9장의 내용인 것인데 이를 여기에 기록하심은 이것을 통해 둘째 화의 시점을 이야기해주시려는 것입니다. 13절의 같은 시간이라 함은 환란 시작하여 전 삼년 반이 끝나고 두 증인들이 1,260일의 사역이 끝나 순교 당하였고, 순교 당한 뒤 삼일 반이 지나간 때이며 이는 후 삼년 반이 시작한 뒤 삼일 반이 지난 때로 두 증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그 때가 바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시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때 핵전쟁으로 세계 삼분의 일이 죽게 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는 예비처에 갈 성도들도 예비처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계12:5]에 철장 권세를 받은 아이가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올라 간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두 증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며 [계12:6]에는 그 여인도 마련데 놓으신 곳으로 가게 됨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비처 성도들이 예비처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사랑의 클리닉<23>

몸이 가벼워야 멀리 뛴다



황성주 박사
(사랑의클리닉)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요통과 신경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최근 들어 체중이 급격히 불어났다

는 것이다. 급격한 체중증가가 신체의 기동이라 할 수 있는 골격과 관절에 무리한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한 것이다. 게다가 몸놀림도 예전 같지 않고 신체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살맛이 안 난다고 입을 모은다.

비만이 건강의 적신호이며 온갖 난치병의 관문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비만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체중이 불어나는 기미가 보이면 즉시 '자신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자신의 생활양식을 점검하고 생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하여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새로 조성하든지 기존의 통제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체중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남자의 경우 군대생활이며 여자의 경우는 시집살이라 할 수 있다. 즉 생활 속에 '규칙성'이라는 팽팽한 요인이 유지될 때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표준체중을 유지하게 된다.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임대하면 '표준형'이 되는 것은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이다. 가사에만 전념하는 주부에 비해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이 몸매 가꾸기가 수월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비만이란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비만을 치료하려면 총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무조건 안 먹는다고 체중이 감소되지 않는다. 다이어트의 기본 원칙은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내용을 규칙적인 '균형식'과 '저칼로리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다이어트와 운동을 병행하면 5배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말해주듯 생활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

운동을 하는 경우 격렬한 운동보다는 운동 강도가 30~50%인 가벼운 운동(빨리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가벼운 등산, 계단 오르내리기, 고정식 사이클링)이 효과적이다. 가벼운 운동은 지방의 연소비용이 매우 높은 반면 운동 강도가 높은 격렬한 운동 후 허기가 지고 식욕이 왕성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먹는 것에 의해 운동으로 소모된 열량이 보충되는 셈이니 헛고생한 한 셈이다. 격렬한 운동 후 일시적인 체중감소는 흘린 땀으로 인한 수분의 감소일 뿐이다.

성경은 경주자의 기본조건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다. 즉 영혼의 비만인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관계의 복잡성을 염려하고 있다. 몸이 가벼워야 멀리 뛴 수 있다. 사심이 없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법이다. 생활이 단순해야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생활의 단순성을 강조하신 바 있다. 비만이 거의 모든 성인병에 직접·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탐심에서 비롯된 '복잡한 삶'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온갖 죄악의 운상이 된다. 적재량을 초과해서 가라앉은 배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쓸데없는 짐을 버리는 결단이 아닐까.

축 2023년 근하신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규필 목사
(동신대학 이사장)

동천교회

주일에 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일아침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세벽기도회 오전 5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전예희 목사

신광교회

주일에 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주일에 배 안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H.P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숙 목사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침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36(2/3), 3동 101호(인양동, 우성아파트)
☎(070)8632-6993 H.P 010-3035-5704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강대일 목사
(영동보수 총회장)

평안교회

주일에 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백명억 목사

금천시온교회

주일에 배 안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춘시흥동)
H.P 010-9600-5028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재석 목사

풍성한교회

주일에 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뱀매장터로 4, 3층(신천동)
H.P 010-5660-857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고성규 목사

다니엘교회

주일에 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視務牧師 서명범

예수패밀리처치

주일에 배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마순덕 목사

사랑하는교회

주일에 배 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0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매주 금 오후 03:00, 08:00

전남 무안군 일로읍 무전길 24
☎061) 281-1671 010-4630-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장한국 목사
(전주총회장)

주사랑교회

주일에 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일아침예배 밤 9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김관호 목사

세향교회

주일에 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79
H, 010-7788-0091 T,032-612-0190

| **종말, 타작심판 13** |

세마포로 옷 입고 신부 단장하라

(지난 시간 이어서)

1. 룯을 본 받으라

예정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에 이어 룯과 같이 아니하면 절대 신 부가 안 된다. 보아스(예수)를 만나 지 못한다. ㉠ 룯은 신분이 과부였다. 과부만이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 계 18:7에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타락을 한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과 부가 아니고 여왕이라고 말한다. 즉 왕후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타락된 교회는 사치하 고 그런 짓을 한다. 과부가 되라고 말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바빌론이 된 다.) 계 2:15절에 ‘그리고 네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 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고 했 다. 니콜라파의 교리로, 영으로 시작 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자의 맥이다. 육적인 교회는 이렇게 마지막에 그대 로 끝나고 만다. 우리는 오직 룯과 같 이 성스러워야 한다. 영적인 삶으로 거룩해야 한다.

㉡ 룯 1:22절 ‘그리하여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 인 룯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 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여기서 베들레 헴은? 떡집인데, 즉 말씀의 집으로 돌아 온 것을 말해준다.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마치 탕자가 가진 것들을 다 탕진하고 남루한 옷을 걸치고 아 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뺑뺑인 말 씀의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는 보리 수확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 룯 2:23절 ‘룯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였다. 추수 때가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 와 함께 거하였다는 것은 이런 뜻이 다.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나는 그때까 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우리는 전도하고 양식 준비하고 교회 의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뜻으로 반 아들이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 룯 3:3절 ‘너는 목욕(회개)하고, 기름(성령)을 바르고, 옷(세마포, 신부

의 옷)을 입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 로 내려가야 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세마포 신부의 옷 을 준비했을 때, 보아스의 타작마당으 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것이 知情意이다. 나와 여러분은 知情意를 바로 알 아야 한다.知情意를 설명한다면 머리 만 커도 소용없다. 그리고 배만 커지 는 것, 감정만 가득하여도 소용없다. 또한 다리만 굵어도 안 된다. 즉 행위 만 가득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바로 맞추어야 한다.

㉤ 룯 3: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 고, 그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가 가서 곡식더미 끝에 눕자, 그녀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를 들추고 누웠더라.’ 고 했다. 룯은 그 비밀을 보아스의 발 치를 들추고 누울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가장 가까이 가서 누 울 때까지 비밀을 발설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눅 7:36~38에 ‘그때 바리새인 중에 서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들 자고 주께 청하니, 주께서 그 바리새 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앉으 시니라.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죄인 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 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옷함 을 가지고 와서, 주의 뒤로 와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내 고,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더라.’ 하셨다. 아멘.

이것 역시 표상이다. 그림자였다. 마지막 때 이렇게 해야 한다. 룯이 이 렇게 한 것이다. 발치에 앉아서 발에 입을 맞추고 룯이 행동했던 그대로 한 것이다. 신기하기만 하다. 룯이 했 던 대로 그 행동을 이 여인이 그대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이 당연하다.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몰랐다. 그래서 비난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발아래 입을 맞추어야 한다.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할렐루 야!

㉥ 룯 3:14에 /그녀가 이른 아침까 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

정기남 목사

편집인

로 알아볼 수 있기 전에 일어나자, 그 가 말하기를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 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을 말하고 있다. 여기 보아스의 말 에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 고 했 다.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비밀이 다. 누구에게나 알려지면 안 된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 어가는 그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사 람들에게 발설하게 되면, 끝장이다. 예컨대 음녀교회, 타락한 교회, 육적 인 교회의 신자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끝장이다. 그래서 이 일이 사 람들에게 알려준다면, 소문나면 안 되 는 것이다. 그리고 육적인 교회나 음 녀교회들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한 것 은 그 때가 밤이었고, 자고 있었기 때 문에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영적으로 밤이 깊은 때 일수록 성 경에는 자지 말라고 했다. 깨어 있으 라고 했다. 이들은 자고 있었기 때문 에 그 비밀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육적인 신자들이 다 자고 있을 때,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뜻은 보아 스의 타작마당으로 혼자서 들어간 것 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적인 신자는 끝장이다. 말세지 말에 원컨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깨어 있지 못하고 잠만 자는 육적인 신자는 끝장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부끄럽지만,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자 신의 그 육 덩어리를 두들겨 깨워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새벽기도 하라고 해도 새벽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 은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사람 의 신앙이 믿음! 그것 밖에 안 되는 데 그러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더하 겠는가?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교인 은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 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볼 때 이러한 사람과는 분명코 같이 자지 말라고 했다. 그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목양칼럼 32

죽은 믿음은 생명이 없는 육적 믿음을 의미한다.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CJTN TV 부사장



지난호에 이어서

34. 죽은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죽은 믿음이란 생명(말씀)이 없는 믿 음으로 자신의 씨(생각)를 심고 가꾸며 열매를 맺고자 하는 육적(혼적)인 믿을 을 의미합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가 증거 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 나님의 의를 복종지 아니하였느니라”(롬 10:2,3)고 하심 같이 하나님의 씨(생각)와 지식을 좇아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씨 (생각)와 자기의 의로 열심히 행하면서 자신의 열심으로 인해 곧 열매를 맺으리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열심히 집을 지어 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어 그 집에 부딪히면 허물어지고, 또 열 심히 튼튼하게 집을 지어도 다시 무너지 는 것처럼 헛된 소망(결국에는 허물어지 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으리라는)을 향 해 정진하는 노력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결국에야 실패와 좌절을 통해 자신의 무 능을 깨닫고 자신의 노력을 포기함으로 써, 오직 주님만 바라고 믿음을 의지하 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산 믿을 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기의 길과 생각 과 생명(혼)으로 인해 자기 꾀술에 빠져 때가 오면 승리만 바라고 믿음을 의지하 자기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못의 38년 된 병자와 같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한 번도 우월점을 지 킨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 직 38년을 채우지 않아서 그런지 자신의 씨(생각)와 자기의 의로 성경(새 언약, 성 령제)을 이루고자 주님을 의지하고 있 습니다(사실은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것 임).

베데스다 못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쳐 오 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낮고자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 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며 자신이 그 못에 제 일 먼저 들어가기를 주님께 원하는 병자 같이 자신의 씨(생각)를 심고 가꾸며 열 매를 맺고자 주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대 부분입니다.

이 믿음의 행함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요,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행위입니 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 나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느 니라” 는 말씀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 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 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말씀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고 겸손 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 하셔서, 못할 것이 없는 영적 장수가 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존귀하신 이 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 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 혜에서 떨어진 자로다”(갈 5 : 4).

35. 산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산 믿음이란 생명(말씀)이 있는 믿을 으로, 하나님의 씨(생각)를 심고 가꾸며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는 영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 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8,9).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 63)는 말씀같이 영이신 하나님의 씨(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예수 그리스도)을 마음 에 심고 가꾸며 열매를 맺고자 노력합니 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도 허물어지 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미 닭이 달걀을 20일이 넘도록 지극 정성으로 품어도 무정란(수컷의 씨가 없 는 달걀)에서는 병아리가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씨(생각)인 하나님 의 말씀(예수 그리스도)을 의지하지 않 고 자기의 씨(생각)와 자기의 의를 토대 로 행하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한다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실패와 좌절을 통해 자신을 발 견함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살 소망이 끊 어지고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을 때 자신

의 씨(생각)와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하 나님의 씨(생각)인 하나님의 믿음을 의 지하는 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 다.

이때라야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서 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씨(생각)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씨(생각)와 자기의 의를 가 지고 아무리 열심히 열매를 맺고자 기도 하고 금식을 해도 죽은 믿음은 뿌리가 썩어 죽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는 이유는 열심히 노력과 기도와 금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 라 하나님의 씨(생각)인 하나님의 믿을 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으로 행하 기 때문입니다.

헬기 내는 죄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 고 금식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씨(생각)인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고 행할까요? 아니면 자신 이 열심히 헬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 며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은 혜와 능력을 주셔서 헬기 내는 죄에서 벗어나 줄 수 있다고요? 이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38년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 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 혜 되지 못하느니라”(롬 11 : 6).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아무 자적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롬 5: 21)고 하심 같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로 인해 우리에게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 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 3:9).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 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 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 23, 24).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축 2023년 근하신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강대울 목사
(전 동부총회장)

평안교회

주일에 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통신 신학생 수시 모집

※ 명예박사 학위 안내 ※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회자 양성 기관으로 불리는 사명은 있으나 여러 사유로 신학을 하지 못하신 분이나 중도에서 포기 하고 계신 분에게 사명감당의 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사명자는 아무 조건 없이 수시 입학이 가능함.
* 개인별 이수과정이므로 수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02) 849-9395
(총회가입 및 목사안수 상담)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정민 목사

성서하나님의교회

주일에 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오후 8:00
금요 기도회 오후 9:00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 (02)465-40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조종수 목사

영광교회

주일에 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6: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00
금요철야 저녁 11:00

인천광역시 서구 장교개로 366(가좌동)

열두광주리 기도원

김명호 목사

새 능력 새 은혜 새 역사
성회 신청접수 합니다.

☎ 010-8411-0191
충남 세종시 연서면 도산교북로 438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혜전 목사

벧엘중앙교회

주일에 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 (032)667-7147 H.P 010-3287-1500

한국기독교

담임 오종설 목사

평안하고든든한교회

주일에 배 안내
주일오전 : 1부예배 오전 9:30 2부 오전 11:30
주일오후 : 저녁 8:00 수요일예배 : 저녁 8:00
금요심야기도회 저녁 : 8: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40
(토, 주일 개인별 자유롭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51 ☎ 041)631-9146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박선중 목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능구리
☎ (033)5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최낙헌 목사

주일에 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정기한 목사

전원중앙교회

주일에 배 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홍항복 목사

사랑의교회

주일에 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국교회총회 총장
사도령성신학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 (02)583-1955 H.P 010-7585-195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송명화 목사

세계영성교회

주일에 배 안내
주일낮예배 :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 오후 2:00
수요 예배 : 오후 7:30,
목요 은사집회 : 오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6:00
금요찬양 일천번제 : 오후 7:40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591-6번지 4층(심곡로 9번길 28)
h.p 010-3098-7270, Tax 032-653-9098

한국은 미 트루먼 대통령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준 최고의 은인,
트루먼의 결심‘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 소련의 스탈린, 중공의 모택동이 합작하여 남침한 6·25전쟁을 겪었고, 그 전쟁의 잿더미로부터 벗어나 오늘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전쟁에서 우리에게 가히 절대적인 은혜를 베푼 우방의 대통령을 잊지는 않았는가?

1950년 6·25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은 트루먼(Harry S. Truman)이다. 그는 가장 형편으로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던 1945년 1월 20일 미국에서 루스벨트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해 4월 12일 루스벨트 대통령의 급서(急逝)로 인하여 트루먼은 부통령이 된 지 82일 만에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재임 당시 한국에서 6·25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게 미군의 개입과 유엔 차원에서 한국을 돕도록 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참전을 이끌어 낸 최고의 주역이다. 우리는 그의 은공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트루먼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는 그리 인기가 높은 대통령은 아니었다. 그의 재임 시 인기가 올라갔던 때는 1948년 재선될 때와 1950년 한국에서의 6·25전쟁 발발 때에 지원했음을 빼앗겼다고 한다.

그러나 퇴임이 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시어도어 루스벨트, 그리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의 업무를 가장 훌륭하게 수행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는 말을 항상 상기했다고 한다. 그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 그의 기도문에 보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제가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해주시

고, 올바른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올바른 것을 행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저를 모든 것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명예롭도록 만들어 주소서...’라고 했다.

한국의 6·25전쟁에서 공산화를 막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견인하여, 기억되는 세 분의 은인이 있다. 트루먼 대통령, 그는 자수성가한 사업가 출신의 직업 정치인이었다. 애치슨 국무장관, 그는 하버드대 출신의 변호사이며 외교 관료였다. 또 한 사람은 맥아더 장군, 그는 명문 집안의 최고의 출중한 직업 군인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용기, 인격,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분명했고, 모두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한국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주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트루먼 대통령에 대하여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이 경기도 파주의 임진각에 세워진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올해로 트루먼 대통령이 서거한 지 50주년이 된다.

그런데 이를 기억하고 28년 동안 트루먼 대통령의 서거일인 12월 27일(미국 시간) 임진각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 앞에서 모여 추모식을 하는 단체가 있다. 사단법인 한미친선연합회(대표회장 홍사광)에서는 해마다 이 행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에도 27일 임진각의 매서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트루먼 전 미 대통령 50주기 추모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한미친선연합회 정책위원장 박정봉 박사의 사회로, 내빈 소개, 개회선언,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한미 양국 국기에 대한 경례, 양국 국가 제창에 이어서, 이억주 목사의 기도, 홍사광 대표회장의 인사말, 총재 반중수 박사의 추모사, 주한미국대사 필립 골드버거의 추모사, 기독교 위원장 이억주 목사의 추도사가 있었다. 그리고 남북중앙교회 최문수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홍사광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무기까지 등장한 한반도에서 평화를 달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하소연하고 싶고, 평화를 이룩할 비책을 알려 달라’고 호소하였다. 총재 반중수 박사는

‘트루먼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반도에서 실현하는데 모범을 보이셨고, 이 땅에서 전쟁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축하하였다.

미국 골드버그 대사는 보내준 추모사에서 ‘자유를 향한 확고한 의지, 선구적인 리더십과 공산주의 확산을 막겠다는 굳은 일념을 바탕으로, 트루먼 대통령은 민주적 원칙에 기반하여 국제 질서 수호를 다짐한 국가들을 결집시키며, 북한의 무자비한 침략에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 내었다. 그 유산으로 대한민국이 번영을 누리고, 대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이 살아 숨 쉬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억주 목사는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시작된 직후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의 파견을 결정했고, 기자들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서 철군했던 나라에서 전쟁이 나자마자 즉각 군대를 파견하느냐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는데 그것은 하늘의 명령이라는 의미였으며, 그러므로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인간성 회복의 길, 평화의 길로 치달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역설했다.

우리의 평화와 번영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런 우방국과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하늘의 뜻을 따라, 우리나라를 피로써 도와준 결과이다. 우리는 이런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지켜나 가는데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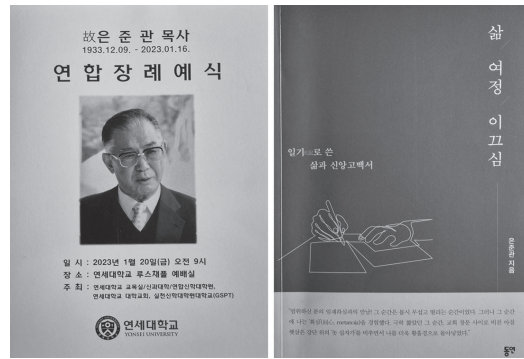
한국교회연론회에서 가져옴



▲임진각에 있는 트루먼 대통령 동상

박명운 칼럼

은준관 목사님의 세 번째 생일



▲(1) 은준관 목사 연갑장례예식, ▲(2) 은준관 목사의 삶과 신앙고백서 '삶 여정 이끄심'

기독교인은 생일이 세 번 있다고 한다. 첫 번째 생일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 생일은 교회에서 세례(洗禮)를 받고 신앙인으로 거듭난 날이며, 세 번째 생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부활(復活)의 삶에 이르게 되는 날이다. 오늘(1월 20일) 존경하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은준관 목사님이 세 번째 생일을 맞아 많은 사람들의 천국환송(天國歡送) 배움을 받으며 하늘나라로 떠났다.

은준관(1933-2023) 목사님은 1월 16일 91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고인의 연갑장례예식이 1월 20일(금) 오전 9시 연세대학교 루스체플 예배실에서 연세대 교목실/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회,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정종훈 목사(연세대 교목)가 장례예식을 집례했으며, 전주(신동일 오르가니스트), 예식사(집례자), 찬송(491장), 기도(홍성국 목사), 성경봉독(문석영 목사), 설교(박종화 목사), 약력소개(김현숙 교수), 추모영상, 조사(박종화 목사), 조사(조은

하 교수), 조가(장정권 솔리스트), 조사(박행신 목사), 가족 인사(은원형 목사), 찬송(384장), 축도(이계준 목사), 후주(신동일 오르가니스트) 순으로 진행되었다. 하관예식은 오전 11시 파주 동화경도공원에서 거행되었다.

고인은 1933년 12월 9일 황해도 웅진군에서 출생하여, 6·25전쟁 당시 18세 나이에 학도유격대 통신대장으로 참전했다. 전쟁 후 감리교신학대학 졸업(1957)과 육군 군목 중위로 제대한 후 미국 듀크대학(Duke University)과 버클리 퍼시픽신학대학원(Pacific School of Religion)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시카고 한인감리교회와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1968-1975)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학장/교목실장(1979-1999), 연세대학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설립 및 1, 2대 총장, 명예총장 그리고 TBC 성서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에는 교육신학, 기독교교육원장론, 신학적 교회론, 실천적 교회론, 인간 창조의 마지막 불꽃, 구원 순례, 삶 여정 이끄심, TBC 구원사 성서연구 등 다수가 있다. 수상은 기독교사회저작상(1977), 감리교회상(2006), 20세기 기독교교육자 선정(북미 기독교교육학회, 2010), Distinguished Alumni Award(PSR, 2010), 호국영웅기장(대통령상, 2013), 자랑스런 동문상(감리교신학대학교, 2014) 등이 있다.

2022년 8월에 펴낸 고인이 일기로 쓴 삶과 신앙고백서 <삶 여정 이끄심> 책 표지에 “엄위하신 분의 임재하심과의 만남! 그 순간은 잠시 무섭고 떨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회심(回心, metanoia)을 경험했다. 극히 짧은 순간, 교회 창문 사이로 비친 아침 햇살은 강단 위의 ‘눅 십자가’를 비추면서 나를 더욱 황홀경으로 몰아넣었다.”고 적었다.

그는 “삶은 내가 살지만, 그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삶은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성찰을 통해 여정을 돌아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지난 90년의 삶은 ‘크신 손’이 이끌어 주신 여정입니다.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었던 전쟁과 죽음과 배고픔, 고독과 좌절로부터의 탈출은 제 힘과 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신 분, 저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제 삶을 이끄신 그분을 고백한 책입니다.”

생전에 은준관 목사님은 90년 인생을 돌아보는 신앙고백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삶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늘 함께하시며 미래로 이끄시는 따뜻한 손길, 저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한국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신앙과 목회는 그러나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앙은 지혜와 지식을 통해 구현돼야 합니다. 신학이 있는 교회와 설교와 교육이 행해지면 좋겠습니다.”

글/ 青松 朴明潤 (서울대 保健學博士 會 會 會, AsiaN 논설위원), Facebook, 20 January 2023.

북평장로교회, 설 맞이 백미(10Kg) 50포 기탁

동해시 북평장로교회(목사 박홍길)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0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10kg) 50포를 북평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북평장로교회에서는 매년 설 명절에 맞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 물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개최, 교회주차장 시설 개방 등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아 클린데이 운영, 취약계층 가구재능기부 활동, 바자회 개최 등 다양한 나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탁된 후원 물품은 복지통장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가구별 방문 전달될 예정이다.



축 2023년 영광교회/목회자 선교예배

근하신년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표어: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사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9)

<교통편>

28번 버스 한신휴아파트 정류장 하차
28-1 버스 한신휴아파트 정류장 하차
3-2 버스 범양아파트 정류장 하차
24-1 버스 코스모스 아파트 하차

<지하철 이용>

동암역에서 - 593 마을버스 승차
범양아파트 하차(중점)
백운역에서 - 566 마을버스 승차
범양상가 정류장 하차(중점)

주강사 : 조강수 목사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66(구.가좌동) 전화 : 032-577-1225

예장웨신총회 2023년賀禮, ‘祝福을 祈願’

선택받은 은혜(시 33:12) “함께 손잡고 너 높이 그리고 멀리 뵈시다”



▲ 예장웨신총회 2023년 신년하례 감사예배를 드린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가졌다.



▲ 총회장 김현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지난 1월 5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화성시 서동탄로 소재 꿈너머꿈교회(총회장 김현수 목사시무) 본당에서 2023년 새해를 맞아 총회 증경총회장, 총회임원, 전국 노회장,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신년하례 감사예배를 드리고, 2부 하례식과 시무떡 커팅식을 갖고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신년 음악회가 진행되어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신년하례는 부총회장 양덕심 목사의 인도로 서기 이병만 목사가 기도를, 부서기 이영선 목사(수도노회장)는 출 17:13절 봉독하고, 특송에 테너 김현호(코레아아트 대표, 총회 음악홍보대사)는 Amazing Grace로 뜨거운 열창에 박수갈채를 받았다.

총회장 김현수 목사는 “2023년, 여호와 닮은 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김현수 총회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셨듯이, 올 한 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미 승리는 예비 돼 있다”면서 “2023년은 웨신총회에 ‘여호와 닮은 해’로서 능력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모든 사역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자”며 격려했다. 끝으로 김 총회장은 우리

는 동역자라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시며,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또한 동행자 웨신총회와 여러분이 있으며, 그러면서 웨신총회 각 노회가 동행자이고, 또한 우리는 동행자로서 원근 각지에서 이곳에 모여 자리를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는 2023년 한해도 동행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웨신총회를 빛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자며 축복을 기원했다.

이어 강동노회장 함금주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서노회장 이승표 목사가 ‘총회와 노회를 위해’ 특별기도를 가졌다. 따라서 웨신대 학노회 증경노회장 최정수 목사는 웨신총회의 초대 선교국장에 선임되어 임명장 및 취임패를 수여했다. 최 목사는 인사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선교국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선교사들을 섬겨 나가겠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헌금 중 50만 원을 한서노회 업성일 선교사(캄보디아)의 수술비로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날 1부 신년감사예배는 증경총회장 이흥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2부 하례식은 부총회장 임예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증경총회장 허창범 목사(광주 웨스트민스터 사이버신학교 총장)는 새해축복기도에서 총회원 모두가 꿈과 비전을 갖고 합력해 선을 이루면서,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에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총회로 자리매김하도록 간구했다. 이어서 시무떡 커팅을 가졌으며, 이정해 목사의 특송, 한서노회 하종우 목사(시인, 증

경부총회장)는 ‘새해 새아침’이란 축시 낭독을 통해 ‘푸르고 푸른 웨신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다.

따라서 새해 인사 및 덕담 시간을 갖는 가운데 총회 역대 증경총회장단 및 원로 목사들의 인사로 진행됐다. 중부노회장 김안식 목사는 전국 노회장을 대표하여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

또한 신년 축하음악회에 주경란 목사(남서울노회)가 아코디언 연주를, 상명대학교 김소임 교수가 피아노 독주를, 성악인 테너 김현호(서울대 성악과/대학원, 코레아아트 대표)의 공연을 통해 은혜와 감동의 장이 되었다.

아울러 총회장 김현수 목사는 인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특별한 선물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더 높이 그리고 멀리 뛰어봅시다 하고, 웨신총회는 명실공히 이제 한국교회 내 중형교단의 위상을 갖게 된 만큼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들이 모두 하나 되고 협력하는 가운데 표준총회로서의 자긍심과 용기를 갖고 2023년 새해를 멋지게 출발하자”며 축복을 기원했다. 한편 김 총회장이 시무하는 꿈너머꿈교회 성도들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 쌀 20포대를 기증해 노회별 어려운 교회에 전달하는 등 2023년 새해를 맞아 후덕한 정을 나누기에 충분했다.

또한 웨신총회는 꿈너머꿈교회 성도들과 총회장 내외부의 정성을 다한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을 위한 기도는 서경노회장 고영진 목사가 축복했다.

한편 웨신총회 총회장 김현수 목사와 선교국장 최정수 목사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선교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돼 국내에서 봉합수술을 마친 한서노회 소속 업성일 선교사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설날과 떡국의 바른 의미와 매장 문화

- 기독교는 속히 깨닫고 귀산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설을 맞아 먹는 떡국은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얗고 뽕얇게 새롭게 태어나자는 의미를 가지고 먹는 음식이다. 순백의 떡과 국물로 지난해의 묵은 때를 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뜻이다.

“설을 쇠다”의 정확한 뜻은 “새해를 맞아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자는 날로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설날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월력보다는 태양력을 쓰므로 구정이란 문자 그대로 월력의 ‘옛 설’이며 신정은 태양력으로 새해이므로 신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월력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 월력을 쓰면 3년에 한 달씩 차이가 나서 윤달을 써야 하므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양력 곧 신정을 쓰는 것이다. 순 우리 말인 ‘설날’이 정확한 표현이긴 하나 유교적 영향을 받아 구정에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어서 구정을 쇠는 것이다.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중국 주자학 성리학에서 내려오는 중국 풍습으로 처음에는 천제로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자가 1년에 한 번씩 하늘님 곧 천신께 제사를 드렸다.

그 후 유명한 · 요 · 순 · 같은 어진 천자에게도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 후에는 각 제후들도 우리 조상에게도 드리자 하고 죽은 제후들에게도 드리다가 그것이 일반화되었다. 그 후 제사 풍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 세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대부부터 지내다가 그 다음에는 양반들이 지내고 나중에는 나라에서 강제로 제사 지내라고 거의 율령처럼 하여 일반인이나 상민들도 지내게 되었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지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돌아가신 후에는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자기와 후손들이 잘되는 것이 효도다. 그러므로 이제 제사 풍



습은 버려야 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사람에게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는 것이라’(고전 10:18-22). 했다. 구정 신정은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우리가 제사를 열심히 지낼 땐,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므로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 국방력도 세계 5위 아시아 3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제사 풍습은 유교 풍습이다. 자유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에서는 조상 사는 헌 옷과 같은 것임으로 헌 옷은 벗어버려야 한다. 심지어 추도예배도 우상숭배에 가까운 것이고 기독교 신교 초기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만들어진 편법이므로 버려야 하는 풍습이다. 진정한 효도는 창조 질서를 지키고,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또 하나 지금 신 불신 간에 많은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소 자리 유택을 알지 못한 곳에 매장하고 유택인 산소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인간 말종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시신을 불 속에 집어넣어 불사른 후 그것도 모자라 유골을 밀가루처럼 가루로 만들어 납골당에 두는데, 이것은 아

주 사악한 인간 말종들이나 하는 천벌 받을 행위이다.

게가 죽어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짐승들도 이러지는 않는다. 사악한 인간들이, 다 회개해야 한다. 성경에는 매장 문화다. 널린 게 땅이다. 법제화한 하면 된다. 의회에는 인간 같은 인간이 그렇게도 없는가, 성경에 없는 사악한 짓을 하고 있다. 그레 놓고 제사는 지내고 추도예배 드리고 추모한다고, 가증하고 역겨운 인간들이다. 효도는 못 할망정 이런 사악한 불효막심한 망령된 짓을 해선 안 된다. 불 심판 받을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

죄악의 도성 소돔성이 불심판을 받았고 폼페이가 화산재로 덮여 멸망하고 말았다.

정신 차려야 한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나는 자연인이다.란 프로가 있는데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욕심이 임태한즉 죄를 내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루를 살아도 거짓을 버리고 창조 질서의 매뉴얼 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인간답게 살다 가야 한다. 새해에 온 가족이 더욱 건강하시고 법사에 형통하고 복된 한 해 되시길♡♡샬롬♡

성명서

MBC는 한국교회와 전쟁도 불사하려는가



송태섭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MBC가 성소수자 그룹으로 알려진 ‘라이오네시’의 신곡 ‘잇츠 오케이 투 비 미’(It’s OK to Be Me)에 대해 당초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가 이후 방송 적합 판정으로 정정했다.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영방송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 이기에 즉시 본래대로 돌리길 것을 촉구한다. ‘잇츠 오케이 투 비 미’라는 제목의 노래 중에 “세상을 구하는 길로 치면 내 맞선임은 Jesus”,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라는 가사가 나온다. 이런 단지

동성애를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 방송 불가 판정했다가 다시 적합 판정을 내린 MBC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만드는 방송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와 부합하는가. 이런 불온한 가사의 노래를 MBC가 방송 적합하다고 하면 국민은 무조건 청취하고 시청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런 폭력적이고 만행이다.

MBC는 한국교회와 동성애를 혐오하는 집단인양 매도하는 방송을 수차례 해왔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동성애를 차별하거나 혐오한 적이 없다. 다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울

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마 5:37)하신 말씀처럼 성경적 복음적 관점에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했을 뿐이다.

우리는 MBC의 이번 결정을 보며 공영방송이 기독교와 한국교회를 적으로 규정하고 방송을 기독교 혐오로 도배질하기로 작정한 듯한 그 추악한 민낯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MBC가 앞으로 5만 교회 1천만 기독교인과 전쟁을 불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방송 부적합성을 인정하고 모든 방송에서 이 불온한 노래를 퇴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1.17.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축 W 2023. 근하신년 임원일동 拜

표어 : 여호와 닮은 해! (출 17:13)

총회장 김현수 목사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총무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양덕심 목사 새생명교회	임예성 목사 별빛교회	김복래 목사 공과효양교회	이병만 목사 원주중앙교회	이영선 목사 하늘샘교회	이정구 목사 예수누리교회	김미라 목사 주찬양교회	허승우 목사 더열교회	최선열 목사 소망교회

총회장 김현수 목사(박사) 010-7667-4719 / 총무 김복래 목사 010-9852-3927

웨신총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길로 172 (301호) 02)835-2606 Fax 835-2608

http://www.ws333.org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 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칼럼리스트

제목: 인내의 성도가 됩시다

성경: 예레미야 29장10-14절 찬송가 408장

당시 거짓 선지자 하나가 있었습니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하면서 조금 했고, 위기와 불안을 조성했습니다. 그 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 신 70년이 차면, 반드시 본토로 돌아오 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신다 전한 것 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 며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러며 주신 말 씀이 <렘29장11절>이었습니 다.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 나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니라” 어떤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일 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자 하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약속을 기억하며 인내할 때 승리를 주실 줄 믿 습니다.

제목: 그래도 구하라

성경: 예레미야 29장10-14절 찬송가 384장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 는 것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지만, 본토 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며, 부르짖어 하 나님께 기도하면 그 약속된 것을 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렘29장12 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 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 을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드 시 이루실 것이지만, 그래도 구하여 기 도하라 하신 이유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 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기도하 며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의 응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 다.

제목: 하나님의 장자 레위지파

성경: 민수기 3장 11-16절 찬송가 321장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 삼 으실 때, 장자의 개념을 통해 가르치시 는 원리는 내 삶의 우선이 되는 것을 먼 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 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 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인 그리스 도스에게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우리의 가장 우선되 는 좋은 것을(장자) 먼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 기에 좋은 것 아닌 하나님이 기뻐할 좋 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헌신 될 때, 이 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 삶도 최고 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목: 은혜의 길을 막는 것

성경: 민수기 5장1-4절 찬송가 321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 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깨끗할 것을 요 구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세 부분으 로 되어 있는데 1) 여러가지 신체적 부 정에 대한 것 2) 돈에 대한 것 3) 부부 사이의 순결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어 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 지를 해결한다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 루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별 것 아닌 사소한 것들로 인해 죄악에 휩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에서 멀어지 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죄가 없어 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다만 죄 가 겉으로 나올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님 앞에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며, 회개 하는 것을 통해 다시 은혜의 길을 여시 는 것입니다.

제목: 등대의 불을 켜게 하심

성경: 민수기 8장1-13절 찬송가 187장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중 성소에 있 는 등대 불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등대 는 성전 안의 유일한 빛이었습니 다. 말 씀 빛으로 꺼져가던 영혼과 양심의 등 불들이 되살아나길 원하신 것입니다. 등대는 살구꽃 모양인데, 불이 오는 소 식을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진리의 등 불로 밝혀지는 세상은 성령의 불같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등대는 다른 이불

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의 금덩이 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죄를 떨쳐버리 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순전한 성 령의 불이 임할 때 모든 무지와 미신과 사탄의 세력을 다 불태울 것입니다. 그 리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예배를 향 한 뜨거운 사모함과 열정을 일으켜 주 실 것입니다.

제목: 유월절의 은혜

성경: 민수기 9장-14절 찬송가 265장

왜 하나님은 이미 애굽을 나온 이스 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 이 받아도 애굽을 향한 옛 탐욕과 죄가 자리하고 있어서, 또 애굽으로(옛 삶으 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다 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년 유월절을 지키므로 이스라엘이 죄와 욕심을 버리고 더러운 삶을 청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리 침 체와 절망에 있어도 유월절 은혜로 돌 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새로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겔세마네 기도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뜻을 찾고, 십자가의 사랑과 희 생으로 살면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부흥과 회복이 나타날 것입니 다.

제목: 최고의 보물

성경: 민수기 10장11-16절 찬송가 28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40년을 보내 게 되는 이유는 길으로는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 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보물의 가치 를 깨닫게 하는 데 있었습니 다. 그 보 물은 하나님 말씀과 이스라엘 자신들 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무너진 우리 들의 삶을 고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보물, 기도 응답과 영적 부 흥을 일으키는 보물이 하나님 말씀입 니다. 또한 최고의 보물은 성도 한 사 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니 다. 이것은 영원히 남는 재산이 됩니 다. 성도가 제대로 성장해서 바른 믿을 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 은 것들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목: 한계를 넘어서려면

성경: 민수기 11장4-15절 찬송가 361장

모세는 하나님께 왜 자기가 이 불평 하는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지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로 다 털어 놓았습니다. 짐이 무거워서 질 수 없다고 했고 솔직하게 이 짐을 벗 기 위해서 죽었으면 더 좋겠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 나님께서 이 짐을 다 가볍게 해 주셨습 니다. 시편55편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불드시고 의인의 요 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 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결국 짐은 우리 가 져야 하지만 이 짐을 자꾸 하나님 앞 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 각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 다.

제목: 성령충만 함시다

성경: 민수기 11장16-25절 찬송가 196장

이스라엘의 불평의 짐을 너무 무거워 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칠 십인의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 며,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짐 이 많이 무거운 것은 짐을 분산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격정과 짐 을 믿음의 대화로 나누고 풀어가십시 오. 그리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스 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 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결 국 짐을 벗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합니 다. 그럴 때, 집착하던 가지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부여주실 영적인 부요함에 관심을 갖게 됩니 다. 결국 하 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라

성경: 민수기 13장1-3절 찬송가 347장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부정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하 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렸기 때문입

니다. 정당한 정보는 정보에 그쳐야 하 는데 정보를 그대로 믿어버린 것입니 다. 정보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 리는 하나님께 결론을 맡겨드려야 합니 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끝까지 열어두 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약 함을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오히려 그 약함 위에 하나 님의 말씀과 비전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가 능성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꿈에 대한 확신으로 채우는 자에게 가나안의 약속 땅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 다.

제목: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성경: 민수기 14장1-12절 찬송가 293장

정탐을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하신 것처럼 좋은 땅이고, 쫓과 쫓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기뻐 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땅을 이스 라엘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고, 결 과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인들의 보호자는 없지만, 이스라엘 의 보호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남다른 생 각을 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아무 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 게 채워실 것입니다.

제목: 지도자 모세의 기도

성경: 민수기 14장11-19절 찬송가 288장

이기학 칼럼

부모의 언어 한마디,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허의 권세에 있 나니”(잠 18:21).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인을 구원하여 함께하시기 위해서 오 셴으며 그리고 예수님게선 믿는 자들 에게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품 으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연약한 자를 섬 기는 자는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부모의 말 한마 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 것 이지만, 잠 18:21에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허의 권세에 있나니” 라고 했다. 분명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무심코 하

는 말조차도 신중해야 한다. 교도소에 수감자분들 중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언어로 인한 결과라는 점이다. 그래서 부모의 언어 한 미디가 자 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아 야 한다.

오늘 교회와 성도님들은 죄인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라 고 본다. 그런데 지금 교회와 성도님들 은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교회에 온 사 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님 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안에 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 기 위해서 교회와 믿는 사람들은 교도

소에서 나온 분들이 어떤 범죄로 인하 여 수감되었다가 출소를 했더라도 그 영혼들을 십자가의 마음으로 받아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 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22년 12월 전국 54의 교정 기관에 수용된 수용자는 53,000명이 다. 이 중 수용자별로 종교 현황을 보 면 (2022년 12월 21일 기준) -기독교 : 17,384명, -불교 : 12,413명, -천주교 : 6,458명, -기타(원불교 등) : 803명 (교정본부제공)이라고 한다. 이는 수용 자 중에 기독교인 수용자가 30%가 넘 어서고 있다는 말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죽

2023년 근하신년

소진우 목사 사역

지저스타임즈 사장
Cjntv 칼럼리스트
한국언론부흥사업의회
영예총재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Good TV 칼럼리스트

주일예배

유치부

주일학교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토요일예배

심야기도회

대예배

주일저녁예배

유치부

주일학교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토요일예배

심야기도회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오후 7시

오전 11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2:30

수요일 오후 8시

매일 오후 10시

토요일 오후 10시

매일 오후 10시

단,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교회 :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장암동) Tel. 02)934-1232

주일예배 / 홍성성전-내포성전-예배시간-동일함

일시	1. 25 [수]-27[금]
장소	홍성성전
주관	충회부흥선교단
일시	2. 1 [수]~3[금]
장소	내포성전
주관	충회부흥선교단

홍성제일장로교회
평안하고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오종설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충남 홍성읍 흥복읍 자경로 51(전화. 041)631-9146
교회카페 <http://cafe.daum.net/ssaxo>

홍성성전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번지
Tel : 634-0441

이사장	총재/직진이사장	사 장	주관 : 지저스타임즈 / 한국기독교언론부흥사협의회 이사회 / 영광교회													
			발행인	증경이사장	증경이사장	명예이사장	명예이사장	명예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 사 장	부 사 장
오승선 목사	허창범 목사	소진우 목사	정기남 목사	조국수 목사	정길원 목사	정한국 목사	이규필 목사	백승모 목사	곽승모 목사	홍병모 목사	박승모 목사	이은자 목사	윌대석 목사	강인수 목사	조영민 목사	고성국 목사

[illegible]

일시: 2023년 1월 27일(금) 오전 11시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장교개로 366(구.가좌4동)
 교회: 인천 영광교회(조강수 목사 시무) / 안내: 류재현 사무총장 010-3788-1130 박찬주 총무국장 010-8863-2070
 차량: 네비게이션에 주소 입력하고 오세요. 전화문의 인천 영광교회 032-577-1225. 홍보국장 010-3478-6574.

본사 방송 신문 홈페이지
지저스타임즈 (지면 신문)
CJTN TV <http://jtntv.kr>
CPJ TV <http://cpj.kr>
CBN knock tv

신문방송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202호) 전화 / 032-672-3031(팩스겸용) 대표 : 010-5468-6574

표어 :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3)

힐리의 예배시간 안내		교육부(주일)	
주일 1부 예배	AM 11:00 본당	태영아 예배	AM 9:00 302호
주일 2부 예배	PM 2:00 본당	유치부 예배	AM 9:00 201호
수요예배	PM 8:00 본당	유초등부 예배	AM 9:00 본당
금요찬양예배	PM 8:00 본당	중고등부 예배	AM 9:00 본당
새벽예배	AM 5:00 본당	청년부 예배	PM 8:00 본당



담임 : 왕 대석 목사
Wang Dae Seok Pastor
E-mail : king-415@hanail.net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70번지
1270, Kwansun-dong, Kwansun-gu Suwon-si,
Gyeonggi-do, 441-836 Korea

교 회 : (031) 224-8475
목사관 : (070) 8269-7809
F A X : (031) 226-5894

2023년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60:1)



주 일 낮 예 배 2부 오전 11시:00
주 일 오후예배 3부 오후 2:30
수 요 기 도 회 오후 8:00
금 요 기 도 회 오후 8:00
매 일 새벽예배 오전 5:30



담임 강익수 목사

경기도 아산시 득산로 41번길 49-16
교회: (041) 546-4325) 010-3759-0192